

꽃길 맨발 걷고 매실 하이볼 한잔... 광양 매화축제 가자

시, 다음달 8일~17일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개최...체류형 행사 풍성
금천계곡 야영장 등 50여 팀 1박2일 여행 가능...팝파티·경품행사도

올해 23번째 치르는 광양매화축제가 '1박 2일 체류' '매실 하이볼' 등 새로운 체험 요소로 무장한다.

광양시는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다압면 매화마을 등지에서 '23회 광양매화축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치른 지난해 축제는 122만명의 관광객을 모았다. 광양시는 올해 개화가 전년보다 일주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축제기간을 이를 앞당겼다. 이날 현재 흥매화는 광양지역에서 꽃망울을 터뜨렸다.

축제는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봄의 서막: 매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광양시는 3개 자치단체와 협업해 '매난국죽(梅蘭菊竹)'을 상징하는 대표 봄 축제의 첫 주자로 나선다.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담양 대나무축제, 함평 국화대전, 신안 새우관축제 등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매겨 지역산권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축제를 꾀한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7~18세 4000원, 6세 이하-65세 이상-19세 미만 광양시민 등 무료이다. 입장료 전액은 지역화폐로 환급된다.

광양시는 광양매화축제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요소를 곳곳에 넣었다.

우선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체류형 행사를 마련했다. 금천계곡 야영장과 매아리 휴양소 등에서 1회 50여 팀이 광양에 머물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2030세대에 인기인 술 '하이볼'과 매실을 결합한 '매실 하이볼'을 선보인다.

또 한복과 교복을 빌려 입는 '웃소매 매화 끝동'과 '섬진강 맨발 걷기' (둔치주차장-도사주차장) 등 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유료 관광객 가운데 추천되면 매화마을 선착장에서 섬진강 뱃길에 오를 수 있는 체험도 준비됐다.

지역민들은 광양 특산품을 솜에 구워먹는 '광양 맛보기'와 '광양 담아 매실도시락' (양은 도시락 하루 300개 한정) 등을 마련해 축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인다.

광양시는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순환버스 운행구간을 확대하고, 차 없는 거리, 교통약자 이동 차량 등을 강화한다.

교통상황을 실시간 안내하고, 화장실 추가 설치, 불법 노점상·야시장 단속 등에도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황금매화-매실 겹(GET) 경품 행사, 서천-마동 음악분수, '올해 광양 어때?' 등은 올해도 이어진다. 주말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얼음 위에 맨발 버티기'와 '사군자 그리기 체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광양매화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다압면 매화마을 등지에서 열린다. 지난해 축제장 전경. <광양시 제공>

'매화 팝파티'도 즐길 거리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용기를 주세요'라는 이름의 운동도 벌인다.

관광 약자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등은 축제장에서 빌려준다.

광양시는 종합안전관리분부를 운영해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와 협업하면서 안전관리 요원을 늘려 배치할 계획이다.

또 광양시와 광양관광 공식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축제를 홍보한다.

광양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축제 추진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 30여 명은 세부 추진계획과 부서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행정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2차 추진상황보고회에 이어 내달 5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미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의 서막을 여는 특별한 축제인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축제로 만들 것"이라며 "안전, 교통, 응급 의료지원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광객들의 동선, 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등 쾌적하고 안전한 축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고립 위기 청소년 사회 복귀 돕는다

9~19세 연말까지 9300만원 투입...전문 상담 인력 배치

여수시가 고립·은둔 위기에 있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자치단체 1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사회 복귀와 진입을 위해 통합적 맞춤 지원을 한다.

은둔·고립형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여수시는 청소년 학령기인 9~19세 청소년과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93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전문 인력 2명을 배치할 방침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168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생 38명, 중등생 30명, 고교생 100명 등으로 나뉜다.

이들 가운데 질병(1명), 해외 출국(16명), 미인정 유학(7명), 기타(14명) 등의 이유로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않기도 했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수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벌여 학업중단 후 사회적 관계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맞춤형 방문 상담과 학습, 치유 지원, 가족 자조 모임 등을 하게 된다.

고기현 여수시 아동청소년전환팀장은 "청소년기에 시작된 은둔과 고립의 문제가 방치될 경우 청년기와 중장년기의 문제로 이어져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고립·은둔 장기화를 예방할 것으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제철, 안전교육장 가동해 근로자 사고 예방

포스코 사업장 최초 운영

컨트롤밸브·배관 등 설비 설치

직원 대상 배관 흐름 파악 실습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습형 안전교육장을 운영한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포스코 산하 사업장 중 처음으로 '공정안전관리(PSM) 교육 실습장'을 구축해 가동에 들어갔다.

광양 기술교육 센터에 조성된 실습장은 컨트롤밸브와 배관, 유체 이송설비 등 실제 설비와 동일한 형태의 교보재가 설치됐다. 지난 13일부터 안전교육을 본격화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에 구축한 실습장을 제철소 내 공정의 흐름도를 보여주는 배관계장도면(P&ID)을 직접 실습해 보며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관계장도면(P&ID)은 제철소 설비에 쓰이는 각종 배관과 계측장비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역할을 기르는 데 필수적이라고 제철소는



광양제철소가 지난 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배관 및 설비 관리 작업을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장 운영을 시작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교육장에서 리더 및 공장장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P&ID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현업 직원 모두가 P&ID 도면을 해석할 수 있고,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향상을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 직원 200여 명이 교육받는다.

광양제철소 한 직원은 "실제 광양제철소에 적용

중인 공정도를 반영한 교육 실습장이 생겨 만족스럽다"며 "현업에 종사하는 선·후배들이 이런 유익한 교육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전남대학교와 협업해 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진이 직접 제작한 교보재와 3D 기반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기반의 'P&ID 시뮬레이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상반기 인재 육성 장학생 선발

초·중·고·대학생 다음달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구례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올해 상반기 인재 육성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나 보호자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학생이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초·중학생은 교육장이,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장학생을 추천한다.

장학생은 다음 달 말 군 인재 육성 기금 심의회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학생 29명

(각 200만원), 고등학생 45명(각 100만원), 중학생 30명(각 30만원), 초등학생 20명(각 20만원)을 뽑는다.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gurye.go.kr)을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061-780-2626)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에서 지원하는 인재 육성 장학금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공부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구례군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가 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 청년 자립 돕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모집

고흥군이 청년 자립 기반을 다지기 위해 16개 읍·면을 찾아가 자활근로 사업을 홍보한다.

고흥지역자활센터는 지난달 23일부터 16개 읍·면을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센터는 고흥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해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센터를 새롭게 정비하고 11억8000만원을 투입해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은 읍·면사무소를 찾아 사업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진입과정 실습교육을 받고 새하얀클린(정소), 어구 제작, 미역 선별, 양봉, 조미김 생산, 누룽지 제조, 해조류 가공 등의 업무를 한다.

또는 읍·면사무소 행정 도우미, 환경 정비 등을 한다.

오군이 고흥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자 모두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종사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 워크숍 명소 인기

편백숲 등 휠체어 타고 이동 가능...지난해 10만여명 방문



지난해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에 9만9000명이 다녀가며 각종 단체 행사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휴양림 안 숲속 휴양관 전경.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지난해 제암산자연휴양림 방문객이 9만9000명을 기록하며 각종 단체 행사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전담환경정질환예방관리센터도 갖추고 있어 전국 학교, 기업, 기관 등의 워크숍·세미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 해 전남권환경정질환예방관리센터가 진행한 교육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보성군은 올해도 단체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남권환경정질예방관리센터가 있는 제암산 일원 산림복합휴양단

지의 하루 최대 수용인원은 3000명(최적 1500명)에 달한다. 1만3367㎡ 규모 잔디 구장과 야외 무대, 250명 동시 수용 가능한 '숲속 교육관', 하루 358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숲속의 집(펜션)' 31동 56실 등을 갖췄다. 해발 500m에는 편백숲이 우거졌으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5.8km 무장애 갑판 길이 있다. 인근에는 단암저수지 수변길도 있다. 숲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용 집라인, 에코어드벤처, 곱셀매 등 체험·체험시설과 족구장 등도 즐길 수 있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

순천 여성 가구에 범죄예방 '안심 홈세트'

100가구 대상 문열림 경보기·호신용 스프레이 등

순천시가 여성(1인 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

안심 홈세트는 기본 5종(문열림경보기, 휴대용 안전도어락, 송장지우개, 향문잠금장치, 호신용스프레이)과 선택 1종(비상버튼스마트링 또는 LED안전호루라기)으로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여성 1인 가구면 누구나 가능하다. 여성 범죄피해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순위에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자는 순천시청 가족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또는 가족복지과 여성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거침입, 교제폭력,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